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87호 [부제 제26161호] 주제 107 (2018)년 10월 14일 (일요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발행식 진행, 신문이

정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작로
『혁명가유자념』은 만대의
철학, 백두의 혁명을 굳건히 이어
나가는 선군혁명의 밑을 깔끔
이 되어야 한다』를 표지로 표시되며

출판, 제재
되는 정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작로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혁명가유자념』은 5일에 진행되었다.
※
※
※

정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작로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조선로동당창건 73돐에 즈음한 인디아전국토론회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73돐에 즈음하여
인디아전국토론회가 9일 뉴델리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장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영적을 담은 사진현수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사진현수막이 토론회장에 모셔져
있다.

또한 최세의 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작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사진현수막이 토론회장에 모셔져
있다.

인디아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들,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
등이 참가한 토론회에서는 기조보고

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비서장
하리쉬 군다, 인디아 김정일로작연구회
위원장 에쓰, 피. 파타크를 비롯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속에 깊이 부여받은 대중적
방으로, 전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건설하시고 강화발전시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적을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정치에서 자주, 경제
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일贯하게 견지해 왔다고 하면서 그들은
인민을 하늘처럼 키고 인민
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펴나는 조선로동당의 위업, 주체혁명
의 원칙을 반드시 완성될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제작되었다.

그들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기준으로 인민을 위한 사례들이 번창
되도록 맡았다고 말하였다.

인디아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들,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
등이 참가한 토론회에서는 기조보고

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조선은 반영의 길로 침착하게 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인민이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둔 놀라운 성과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송고한 민족애와 평화수호의지에 의
하여 조선반도에 평화번영의 새시대
가 펼쳐진데 대해 찬양하였다.

그들은 오늘 조선 인민은
김정은각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그이의 명도를 높이 뱉어나갈 절의
에 충만되어 있다. 결집한 명도자께서
세계에 조선로동당의 위업, 주체혁명
의 원칙을 반드시 완성될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제작되었다.

그들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기준으로 인민을 위한 사례들이 번창
되도록 맡았다고 말하였다.

인디아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들,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
등이 참가한 토론회에서는 기조보고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제287호에서 창간하시고 및 내어오신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높이 모시며 그 위용을 만방에 펼치며

불의 탕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어 올수 있었습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지자이며 항도자

인 양왕스러운 조선로동당 73돐을 뜻깊게

맞이하는 이 시작 재중조선인총연합회와 전체

제중동포들은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오로지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이

상수 꿈까지 가고 갈 철석의 의지로 가슴 불

태고했습니다.

우리들은 백두산천출원인들의 주체적혁명

동로운동사상을 높이 받들고 제중조선인

총연합회를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한 해외동포

조직으로 더욱 끝까지 꾸려나가며 조국과 민족

우리에게 국운통에서 해외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비록 이익땅에 있어도 언제나 조국의

하늘과 우리를 바라는 주체의 혁명적당

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온 사회의

김정일·김정일주의회를 당의 최고 강령으로

제시하여 주시였습니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명도밑에 세계정치를 주도하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제중동포들의

제287호에서 원수님의 애국애족의 높으신 뜻과 통큰

제단에 의해 북남관계에서는 편일 사변적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287호에서 원수님께서는 일제

제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당건설

을 첫째가는 근본문제로 보시고 참다운 정치

조직인 바토국주의 통령을 결정하시여 주체혁

의 혁명적당건설의 시원을 열어놓으셨으며

20성상에 걸치는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

당장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펼쳤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리자

련속공격전으로 총공사량의 70% 계선 돌파

황해남도 물길 2단계 공사에

점령 못 할 요새도, 냉지, 풍자
동진현 일군들과 둘러싸인 일군들은
물길 공사를 하루빨리 완공하여
어머니당에 승리의 보고를 올렸다.
임금안고 드세한 현존공
70%를 70%를

제287호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기준으로는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의 정신에 맞게
전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건설하시고 강화발전시키는
위대한 령도를 높이 뱉어나갈 절의에
충만되어 있다. 결집한 명도자께서
세계에 조선로동당의 위업, 주체혁명
의 원칙을 반드시 완성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의 정신에 맞게
전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건설하시고 강화발전시키는
위대한 령도를 높이 뱉어나갈 절의에
충만되어 있다. 결집한 명도자께서

세계에 조선로동당의 위업, 주체혁명
의 원칙을 반드시 완성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의 정신에 맞게
전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건설하시고 강화발전시키는
위대한 령도를 높이 뱉어나갈 절의에
충만되어 있다. 결집한 명도자께서

세계에 조선로동당의 위업, 주체혁명
의 원칙을 반드시 완성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의 정신에 맞게
전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건설하시고 강화발전시키는
위대한 령도를 높이 뱉어나갈 절의에
충만되어 있다. 결집한 명도자께서

세계에 조선로동당의 위업, 주체혁명
의 원칙을 반드시 완성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의 정신에 맞게
전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건설하시고 강화발전시키는
위대한 령도를 높이 뱉어나갈 절의에
충만되어 있다. 결집한 명도자께서

세계에 조선로동당의 위업, 주체혁명
의 원칙을 반드시 완성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의 정신에 맞게
전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건설하시고 강화발전시키는
위대한 령도를 높이 뱉어나갈 절의에
충만되어 있다. 결집한 명도자께서

세계에 조선로동당의 위업, 주체혁명
의 원칙을 반드시 완성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의 정신에 맞게

전투조직과 지원을 페기 있게 하

였다. 특히 시공일군들은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공정법시공

지도를 앞세워 공사속도를

높이 높이는 데 적극 참여하였다.

남포시리더단에서 열린 협력

전투조직과 지원을 페기 있게 하

였다. 일군들은 시공일군들이

이를 이룩하였다.

제287호에서는 조선로동당은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아서(38)

불멸의 그 업적 우리는 잊지 않으리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판에 대한
참관을 이어가는 우리의 발길은
4호실로 향하였다. 현실에 들어서니
벽면들의 웃쪽에 부각되어 있는 글들
들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우리 사회주의의 정치사상
진지 강화』, 『강계정신등조』,
『성강의 통화』, 『감자농사에서 혁
명을 일으켜』, 『토지 정리의 새
역사』,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 글들은 4호실의 사상주제책에
는 무엇인가를 전하여 주고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생애는 혁명
의 불은기 빛나고 강렬한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전인
민대의 험난한 행진을 헤쳐온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생생이 있으며 조국과 민족을 위하
며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의 가장 고결한 환생이었습
니다.』

우리의 참관은 1990년대에
준연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게 된
사실을 보여주는 벽면에서부터 시작
되었다.

당시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반공작
국고립 압살책들과 편이은 자연재해
로 하여 우리 조국은 경제적난관에
직면까지 접두 관리를 하게 되었다.

우리의 사회
주의 정치 사상
진지를 만세 같
이 다져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해 감명깊이 해설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대중을
사회주의 사상으로 충실히 무장시키고
사회주의 사상진지를 굳건히 다져
야 사회주의를 광고발전시킬 수 있으
며 그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사회주
의를 끝내지 않을 수 있다고

하시며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교양,
반체계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도록
하였다.

벽면에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일군들은 고난의 행군정
신으로 살며 일해야 한다』, 『오
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레일
을 위한 오늘에 살자』 등 위대한
장군님께서 밟았던 복지와 노동
로동들을 보며 참관자들은 그처럼 어
려운 때 우리 인민이 어떻게 되어 헤

명의 한길을
번창없이 걸어
올수 있었는가
를 가슴깊이
느끼었다.

참관자들에
게 강사는 대
한 장군님께 서
수령, 당, 대중
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
하는 사업에
걸은 관심을
돌리시며 우리
당을 영원한
수령님의 향으로
빛을 뿐리
도록 하시었으
며 끊없는 인
민사랑과 청년
중시정치로 전
시민으로서 사
회주의 위업을
전개하고 헌
신하고 완성하
기 위한
투쟁으로 이끄
며 대하여
실감있게 이야
기하였다.

우리의 참관은 1990년대에 준
연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게 된
사실을 보여주는 벽면에서부터 시작
되었다.

당시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반공작
국고립 압살책들과 편이은 자연재해
로 하여 우리 조국은 경제적난관에
직면까지 접두 관리를 하게 되었다.

우리의 사회
주의 정치 사상
진지를 만세 같
이 다져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해 감명깊이 해설하였다.

우리의 사회
주의 정치 사상
진지를 만세 같
이 다져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해 감명깊이 해설하였다.

우리의 사회
주의 정치 사상
진지를 만세 같
이 다져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해 감명깊이 해설하였다.

우리의 사회
주의 정치 사상
진지를 만세 같
이 다져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해 감명깊이 해설하였다.

우리의 사회
주의 정치 사상
진지를 만세 같
이 다져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해 감명깊이 해설하였다.



그이께서는 나
라의 부강발전
과 찬란한 력대
을 위하여 천조
를 다루며 중산
의 불꽃을 날리
는 로동자들을
천히 만나시여
따뜻이 고무격
려해주시고 현
장에서 풍광기
동에 슬련전대
의 용연도 보아
주시면서 그를
죽은 사람을 위한
장군님의 중요성
제부 분들을
찾고 찾으시며
생산성 상화를
위한 두정의
불길을 세우게
지켜주시었다.

창관자들은 혈연의 정으로 떠나간
병도자와 일민의 혈연일체의 화목을
보여주는 환상의 영상사진문헌에서
눈길을 빼지 못하였다.

주제 8 4 (1998)년 7월 7일
장군님의 중요성
제부 분들을
찾고 찾으시며
생산성 상화를
위한 두정의
불길을 세우게
지켜주시었다.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은 본
질에 있어서 농
업과 경공업을
발전시켜 기
위한 천략,
인민생활을 높
이기 위한 천략
이 바로 밤혀
찾고 찾으시며
생산성 상화를
위한 두정의
불길을 세우게
지켜주시었다.

『화물처럼 밀고 싶습니다』, 『강행
군을 승리에 이른
걸 축출한 명도』...

벽면에 전시된 『로동신문』 기사
들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빛나는
승리에도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만대로 혁명의 학길에서 자기
명도자를 번창없이 만든 우리 일민
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를 말해 주고
있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판에 대한
참관을 마친 우리 눈앞에 노래
『우리는 잊지 않으리』의 구절구절
이 뜨겁게 안겨들었다.

... 창관자들은 혈연의 정으로 떠나간
병도자와 일민의 혈연일체의 화목을
보여주는 환상의 영상사진문헌에서
눈길을 빼지 못하였다.

주제 8 4 (1998)년 7월 7일
장군님의 중요성
제부 분들을
찾고 찾으시며
생산성 상화를
위한 두정의
불길을 세우게
지켜주시었다.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은 본
질에 있어서 농
업과 경공업을
발전시켜 기
위한 천략,
인민생활을 높
이기 위한 천략
이 바로 밤혀
찾고 찾으시며
생산성 상화를
위한 두정의
불길을 세우게
지켜주시었다.

『화물처럼 밀고 싶습니다』, 『강행
군을 승리에 이른
걸 축출한 명도』...

벽면에 전시된 『로동신문』 기사
들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빛나는
승리에도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만대로 혁명의 학길에서 자기
명도자를 번창없이 만든 우리 일민
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를 말해 주고
있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판에 대한
참관을 마친 우리 눈앞에 노래
『우리는 잊지 않으리』의 구절구절
이 뜨겁게 안겨들었다.

... 창관자들은 혈연의 정으로 떠나간
병도자와 일민의 혈연일체의 화목을
보여주는 환상의 영상사진문헌에서
눈길을 빼지 못하였다.

주제 8 4 (1998)년 7월 7일
장군님의 중요성
제부 분들을
찾고 찾으시며
생산성 상화를
위한 두정의
불길을 세우게
지켜주시었다.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은 본
질에 있어서 농
업과 경공업을
발전시켜 기
위한 천략,
인민생활을 높
이기 위한 천략
이 바로 밤혀
찾고 찾으시며
생산성 상화를
위한 두정의
불길을 세우게
지켜주시었다.

『화물처럼 밀고 싶습니다』, 『강행
군을 승리에 이른
걸 축출한 명도』...

벽면에 전시된 『로동신문』 기사
들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빛나는
승리에도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만대로 혁명의 학길에서 자기
명도자를 번창없이 만든 우리 일민
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를 말해 주고
있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판에 대한
참관을 마친 우리 눈앞에 노래
『우리는 잊지 않으리』의 구절구절
이 뜨겁게 안겨들었다.

... 창관자들은 혈연의 정으로 떠나간
병도자와 일민의 혈연일체의 화목을
보여주는 환상의 영상사진문헌에서
눈길을 빼지 못하였다.

주제 8 4 (1998)년 7월 7일
장군님의 중요성
제부 분들을
찾고 찾으시며
생산성 상화를
위한 두정의
불길을 세우게
지켜주시였다.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은 본
질에 있어서 농
업과 경공업을
발전시켜 기
위한 천략,
인민생활을 높
이기 위한 천략
이 바로 밤혀
찾고 찾으시며
생산성 상화를
위한 두정의
불길을 세우게
지켜주시였다.

『화물처럼 밀고 싶습니다』, 『강행
군을 승리에 이른
걸 축출한 명도』...

벽면에 전시된 『로동신문』 기사
들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빛나는
승리에도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만대로 혁명의 학길에서 자기
명도자를 번창없이 만든 우리 일민
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를 말해 주고
있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판에 대한
참관을 마친 우리 눈앞에 노래
『우리는 잊지 않으리』의 구절구절
이 뜨겁게 안겨들었다.

... 창관자들은 혈연의 정으로 떠나간
병도자와 일민의 혈연일체의 화목을
보여주는 환상의 영상사진문헌에서
눈길을 빼지 못하였다.

주제 8 4 (1998)년 7월 7일
장군님의 중요성
제부 분들을
찾고 찾으시며
생산성 상화를
위한 두정의
불길을 세우게
지켜주시였다.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은 본
질에 있어서 농
업과 경공업을
발전시켜 기
위한 천략,
인민생활을 높
이기 위한 천략
이 바로 밤혀
찾고 찾으시며
생산성 상화를
위한 두정의
불길을 세우게
지켜주시였다.

『화물처럼 밀고 싶습니다』, 『강행
군을 승리에 이른
걸 축출한 명도』...

벽면에 전시된 『로동신문』 기사
들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빛나는
승리에도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만대로 혁명의 학길에서 자기
명도자를 번창없이 만든 우리 일민
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를 말해 주고
있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판에 대한
참관을 마친 우리 눈앞에 노래
『우리는 잊지 않으리』의 구절구절
이 뜨겁게 안겨들었다.

... 창관자들은 혈연의 정으로 떠나간
병도자와 일민의 혈연일체의 화목을
보여주는 환상의 영상사진문헌에서
눈길을 빼지 못하였다.

주제 8 4 (1998)년 7월 7일
장군님의 중요성
제부 분들을
찾고 찾으시며
생산성 상화를
위한 두정의
불길을 세우게
지켜주시였다.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은 본
질에 있어서 농
업과 경공업을
발전시켜 기
위한 천략,
인민생활을 높
이기 위한 천략
이 바로 밤혀
찾고 찾으시며
생산성 상화를
위한 두정의
불길을 세우게
지켜주시였다.

『화물처럼 밀고 싶습니다』, 『강행
군을 승리에 이른
걸 축출한 명도』...

벽면에 전시된 『로동신문』 기사
들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빛나는
승리에도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만대로 혁명의 학길에서 자기
명도자를 번창없이 만든 우리 일민
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를 말해 주고
있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판에 대한
참관을 마친 우리 눈앞에 노래
『우리는 잊지 않으리』의 구절구절
이 뜨겁게 안겨들었다.

... 창관자들은 혈연의 정으로 떠나간
병도자와 일민의 혈연일체의 화목을
보여주는 환상의 영상사진문헌에서
눈길을 빼지 못하였다.

주제 8 4 (1998)년 7월 7일
장군님의 중요성
제부 분들을
찾고 찾으시며
생산성 상화를
위한 두정의
불길을 세우게
지켜주시였다.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은 본
질에 있어서 농
업과 경공업을
발전시켜 기
위한 천략,
인민생활을 높
이기 위한 천략
이 바로 밤혀
찾고 찾으시며
생산성 상화를
위한 두정의
불길을 세우게
지켜주시였다.

『화물처럼 밀고 싶습니다』, 『강행
군을 승리에 이른
걸 축출한 명도』...

벽면에 전시된 『로동신문』 기사
들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빛나는
승리에도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만대로 혁명의 학길에서 자기
명도자를 번창없이 만든 우리 일민
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를 말해 주고
있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판에 대한
참관을 마친 우리 눈앞에 노래
『우리는 잊지 않으리』의 구절구절
이 뜨겁게 안겨들었다.

... 창관자들은 혈연의 정으로 떠나간
병도자와 일민의 혈연일체의 화목을
보여주는 환상의 영상사진문헌에서
눈길을 빼지 못하였다.

주제 8 4 (1998)년 7월 7일
장군님의 중요성
제부 분들을
찾고 찾으시며
생산성 상화를
위한 두정의
불길을 세우게
지켜주시였다.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은 본
질에 있어서 농
업과 경공업을
발전시켜 기
위한 천략,
인민생활을 높
이기 위한 천략
이 바로 밤혀
찾고 찾으시며
생산성 상화를
위한 두정의
불길을 세우게
지켜주시였다.

『화물처럼 밀고 싶습니다』, 『강행
군을 승리에 이른
걸 축출한 명도』...

벽면에 전시된 『로동신문』 기사
들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빛나는
승리에도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만대로 혁명의 학길에서 자기
명도자를 번창없이 만든 우리 일민
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를 말해 주고
있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판에 대한
참관을 마친 우리 눈앞에 노래
『우리는 잊지 않으리』의 구절구절
이 뜨겁게 안겨들었다.

... 창관자들은 혈연의 정으로 떠나간
병도자와 일민의 혈연일체의 화목을
보여주는 환상의 영상사진문헌에서
눈길을 빼지 못하였다.

주제 8 4 (1998)년 7월 7일
장군님의 중요성
제부 분들을
찾고 찾으시며
생산성 상화를
위한 두정의
불길을 세우게
지켜주시였다.

당의 혁명적<br

당정책관철에 불러일으키는 당조직들의 힘 있는 조직정치사업

현지말씀관철에서 발휘되는 혁신적인 투쟁기풍

경성군당위

정성군이 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과업을 철저히 관찰하기 위한 두정에 산악 같이 일떠선 군안의 일군들과 인민들의 기세는 데만하다.

지당공용을 발전시키고 군을 특색있게 꾸려 경성평에 살기 좋은 인민의 땅을 일떠서 우시며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용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군당위원회 일군들이 서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군들은 인민을 위한 일밖에 모르고 인민을 위한 일을 성실하고 능숙하게 하며 인민을 위한 일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는 인민의 한편 뿐 무사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7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포근로자자유양소를 현지지도하면서 경성군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강행적 과업들을 밝혀 주신 다음날이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집행위원들을 비롯한 책임임원들의 헌의회를 긴급히 소집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집행을 위한 대책들을 토의하였다.

협의회에서 쇠장남군당위원회는 절실히 말하였다. 우리 군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대로 발전하느냐 놓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기마수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때 인민의 웃음소리가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하자. . .

협의회에서는 경애하는

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군당위원회의 밤기에 따라 군에서는 문전기체들을 홍동원화하여 혼석운반전투를 벌리였다. 그리하여 3일동안에 수천m³의 혼석을 건설장까지 수송하여 공사를 불이 번져 나게 다그칠 수 있었다.

기술자, 기능공들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도 군당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점이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지방공업공장을 현대화하고 군의 면모를 알리기 위해 기술자, 기능공들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이미전에 설계와 시공을 통솔기사기는 정체사업을 공제으로 맡았다.

선전선동부 일군들이 실감있게 만든 기술사업자들과 가지고 풍광, 협동농장, 인민단들에 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을 널리 해설선전하면서 대중의 정신력을 불출시켰다. 어려운 건설장에 구호판, 속보판, 경정도 표판들이 기능적으로 전개되고 불은 기름이 펑펑 날뛰는 분위기로 고조되었으며 방송선전차와 음향증폭기체들에서 흘러내리는 그것도 그의 의도였다.

온포전에 진설된 3호발전소의 수동포트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5t이나 되는 수불을 기증하고 있어 1.0t/m³의 높이로 물을 어울려 수불에 조립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군당위원회는 물리에서 지 않았다. 그는 온포전사업소의 기능공들을 들어가 정치사업을 벌리면서 그들이 지혜와 열정을 펼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들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내영일군과 너행원들로 풍랑대를 조직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위대한 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의 주관격인 밤인 노동전선에서 과학농사, 초금당위원회는 자신의 사업을 품질에 일드키고 다수확운동을 품질에 일드려야 한다.』

엄마친 우리는 김정일기사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과학으로 비약할때 대한 우리 당정책은 실로 정당하다고 하면서 올해 초금당위원회가 과학농사를 분배하게 지어 농사에서 새금당을 받을 높은 목표를 내걸었다.

우선 근로자들이 과학농사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일군과 일군에게는 이랑재비기술과 풍랑대를 조직하고 이를 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그는 일군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멀려나 온포근로자 휴양소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 수불의 완쪽기둥을 우로 끌어들여 조립하고 이론재미 부여 떨쳐나기 기초공사에 쓰일 막돌과 자갈을 재워하였다.

모두다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당의 보건정책을 충직하게 밟들어가는 참된 당원

황해북도인민병원

안파책임의사 김명월동무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건은 사람의 생명
과 건강을 책임지고 봉보는
것만큼 누구보다도 당에 충
실했고 인민을 사랑하며 책
임성과 기술실무적자질이 높
아니다.』

황해북도인민병원 안파책임
의사 김명월동무는 단발머리처
니식집무에 수십년째 원안파
사로 일해오면서 수많은 환자를

에게 광명을 안겨준 오랜 의료
일군이다.

인간에 대한 지극한 정성을

지니고 인민들에게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해태이 더

잘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한생

을 광그리 바쳐가고 있는 그의

원신적인 짐은 당시 보건정책

을 발달시키는 의료일군이어야

면,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당원이라면 어떤 책임감과 열

정을 지녀야 하는 가를 깊이 새

겨주고 있다.

최고의 미세수술인 안파수

술은 높은 의학지식에 기초한

세계 수술기술을 요구했다.

그는 자기의 치료경험을 보다

풍부히 하기 위해 조선양병원의

이름있는 안파의사들을 찾았

아가 그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림에 수술기술을 익혀나

갔다.

낮에는 환자치료에 열중하고

밤에는 밤대로 짐승의 눈을 빼

용한 수술치료의 모의수술을 거듭

하였다. 두눈은 충격되고 입술은

한창 부르려 있었다.

하지만 어버이 수명님의

유흔을 달들이 인민의 눈을 지

아가 할 영예로운 파업을 지닌

의료일군이었기에 그에게는

쓰리질 권리도, 불리실 자리도

없었다.

이런 미라는 노력을 그는

마침내 인공수정제이식수술의

핵심기술을 더듬하게 되었고 첫

수술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정상시력을 되찾고

밝은 눈으로 위대한 수명님들의

초상화를 우러르며 미소를 띠

고 눈물을 흘리며마다 김명월

동무는 자기가 지켜온 초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자각

하였다.

(환자들은 광명을 찾는 그

순간 위대한 수명님들과 우리

당을 우리 데려고 고마운 감사의

눈물부터 흘린다. 그러니 내가

눈을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선생님, 고칠 수 있었지

요?』

에 관한 기대를 안고 자기의

손을 더듬어 잡는 그에게 어찌

다른 말을 할 수 있으랴.

김명월동무는 애써 웃으며 그

의 두손을 꾹 꿰여주었다.

『일없어요. 인자 아들의 얼굴

을 볼 수 있을거예요.』

첫 수술이 진행될 후 다시는

앞을 보지 못할 것 같았던 환자

의 눈에 광명이 흐려들었다. 비

록 끊지 않은 자신의 얼굴을 어렴풋

이나마 알아보고 기쁨에 눈물짓

는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김명월

동무의 마음도 어느 정도 개운

하였다.

그날 같은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남편인 현성원동부

와 함께 나란히 퇴근길에 올랐

던 김명월동무는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

의 말속에는 일상 보민원의사

눈을 빼워준에 대한 자부심이

어느 정도 찢어져 있었다. 그런대

그의 말은 현성원동부의

얼굴이 절정 어두워지는 것 같

았다.

이야기는 김명월동무의 가

슴속에 깊이 새겨졌다. 하여 그

는 대략 줄업한 후 안파의사

가 되었다.

김명월동무는 조용히 일어나

위대한 수명님의 초상화를 우러

렸다.

『난 당신이 완치시키지 못한 환

자를 두고 기뻐할줄은 몰랐소.』

『...』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으나

그는 당시 까지만 하여도 중
앙병원에서만 하는 것으로 되
여 있던 인공수정제이식수술방
법을 대체하게 받아들이기로 하

었다. 이 수술방법을 받아들

을 그대로 전하여 주는 뜻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고 김명월동무

는 당시 세월 해마다 도안의 여

러 시, 군들을 돌아며 이동치료를

진행하여 수천명의 실명자들에

게 광명을 안겨주었다.

언제나 그는 이동치료에 함께

참가했던 파의 짐은 의사가 자

기들로 건너가 힘든 육체적부

담을 무슨 침으로 이겨내는 지

었고 고비들이 넘어있었다.

그는 환자치료에 열중하고

밤에는 밤대로 짐승의 눈을 빼

용한 수술치료의 모의수술을 거듭

하였다. 두눈은 충격되고 입술은

한창 부르려 있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그들이

임원원에 있는 24·0여일간 김명

월동무는 그렇게 하루와 같이

기구에 맞는 음식들을 미련하

느라며 매일 밥을 새우로 하였

다. 그 날 밤에는 피곤하자마

자 너무 힘겨워 그대로 주저앉

고 싶을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그는 자기가 환자

치료에 전심 할수 있도록 떠

밀어 주고 남세와 접침술들을

정성으로 하면서 광명을

나누고자 노력하였다.

김명월동무는 바로 이런 불

건강상의 짐을 지니면서

현성원동부의 진정한 동지로

되었다.

그의 진정한 동지로는 김명

월동무였다. 그는 그의

인생을 끝까지 헌신하였다.

그의 진정한 동지로는 김명

월동무였다. 그는 그의

인생을 끝까지 헌신하였다.

그의 진정한 동지로는 김명

월동무였다. 그는 그의

인생을 끝까지 헌신하였다.

그의 진정한 동지로는 김명

월동무였다. 그는 그의

인생을 끝까지 헌신하였다.

그의 진정한 동지로는 김명

월동무였다. 그는 그의

인생을 끝까지 헌신하였다.

그의 진정한 동지로는 김명

월동무였다. 그는 그의

인생을 끝까지 헌신하였다.

그의 진정한 동지로는 김명

월동무였다. 그는 그의

인생을 끝까지 헌신하였다.

그의 진정한 동지로는 김명

월동무였다. 그는 그의

인생을 끝까지 헌신하였다.

그의 진정한 동지로는 김명

월동무였다. 그는 그의

인생을 끝까지 헌신하였다.

그의 진정한 동지로는 김명

월동무였다. 그는 그의

인생을 끝까지 헌신하였다.

그의 진정한 동지로는 김명

월동무였다. 그는 그의

인생을 끝까지 헌신하였다.

그의 진정한 동지로는 김명

월동무였다. 그는 그의

인생을 끝까지 헌신하였다.

그의 진정한 동지로는 김명

<p

